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주편

* 11월 3일 수요일 잠언을 먼저 읽어 주세요.

‘열매는 끝에 연다.’, ‘끝까지 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먹는다. 신비한 세계에 도착하게 된다.’ 하면서 ‘끝까지다!’ 했습니다.

1. 나 예수가 보니 모두 끝까지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쉽게 하고 끝난다. 나무를 키워 꽃향기나 맞고 끝나고, 또 열매를 먹어도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은 열매나 먹고 끝난다. 그렇게 아쉽게 끝나지 말고 끝까지 하여 꽃을 거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키워 충실한 인생 열매를 먹고 살아라.
2. 만족, 충만, 나와 일체다.
3. 아쉽게 사는 인생은 감칠맛만 나게 하는 인생이다. 내 마음과 속을 타게 하는 인생이다. 미련을 갖게 하는 인생이다. 미완성 인생이다. 이런 인생에게는 나 예수의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다.
4. 완성해야 완전히 빛나고 절정의 맛을 본다. 초가을이나 완연한 가을이 오기 전에는 절정의 오색찬란한 단풍을 볼 수 없다.